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일본 야쿠시마의 삼나무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 배상원

일본 남동쪽 끝 가고시마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야쿠시마 섬은 가고시마에서 쾌속선으로 거의 2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인구 13,000명, 면적 500km²의 비교적 작은 섬이다. 연강수량이 해안 저지대 4,000mm, 산악지 10,000mm으로 일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인구는 1만 3천명, 사슴은 9000~ 16000마리, 짧은 꼬리 원숭이는 3000~4000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슴과 원숭이의 숫자가 사람보다 많다. 야쿠시마의 지형은 완만한 해변 지역에서 경사가 급한 산악지로 이어진다.

가장 높은 산은 해발 1,935m으로 섬 중앙에 있는 미야노우라다케(宮之浦岳)로 규슈 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해발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숲들이 나타난다. 해안에서 해발 1000m까지는 상록활엽수인 붉가시나무, 구실갯밤나무 등과 낙엽활엽수인 너도밤나무, 노각나무 등의 활엽수림이 해발 800m에서 1800m 사이에는 침엽수인 삼나무, 일본전나무, 솔송 등이 자라는 삼나무 산림대가 분포하고 있다. 그 위로 1800m 이상의 지역에는 야쿠시마 만병초, 이대 등이 자라는 관목 산림대가 있다.

이중 야쿠시마를 대표하는 수종은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로 일본 말로는 스기(杉)라고 하는데 학명은 수고 50m까지 자라는 상록침엽수다. 일본에서는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해발 300~900m 사이의 계곡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다. 야쿠시마는 삼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남쪽 지역으로 야쿠시마에서는 지질과 기후가 달라서인지 수천 년을 살고 있다. 야쿠시마의 삼나무 중 수령이 1,000년 이상 되는 것은 야쿠스기라고 부르며, 1,000년 이하의 것은 고스기((*Kosugi*)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사진2 = 야쿠시마 해안의 해안림

야쿠시마의 삼나무는 17세기부터 일본 본토의 사찰과 신사를 짓는데 수많은 삼나무를 벌채하였는데도 아직도 2,000그루가 넘는 야쿠스기가 자라고 있다. 야쿠스기는 해발 800m에서 1800m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야쿠스기는 큰 나무들이 듦성듬성 자라고 있는 것이 많다. 이 중 수령이 2,000~3,000년이 되는 노거수는 이름이 있는데 미야노우라다케를 중심으로 노거수들이 많이 자라고 있으며, 조몬스기가 이곳에 자라고 있다.

조몬스기는 야쿠스기를 대표하는 나무로 수고는 25.3m, 흉고 둘레는 16.4m다. 이는 야쿠스기 중에 크고 수령이 2200~7200년으로 수령이 가장 많은 나무로 추정하고 있다. 아라카와담에서 시작되는 조몬스기로 가는 길은 임업용 철길에서 시작되는데 도보로 기찻길을 지나다 보면 다양한 숲을 볼 수가 있다. 철길이 끝나면서부터는 한 사람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등산길로 접어드는데 삼나무 거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숲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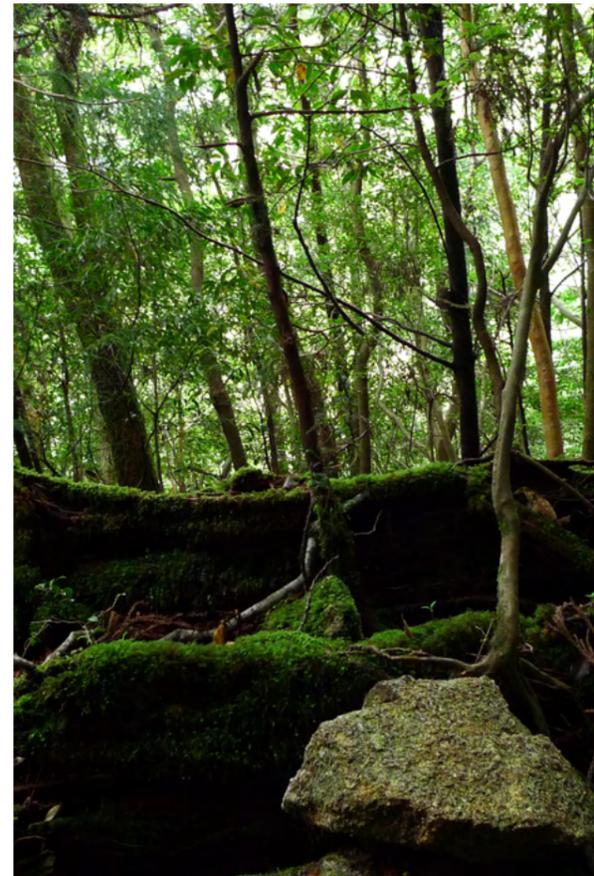
삼나무 줄기에 초록 이끼가 가득 자라고 있으며, 그루터기 위에 자란 삼나무의 뿌리가 초록색 이끼에 덮여 자라고 있는 모습은 마치 열대우림에 온 것 같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보면 커다란 삼나무 그루터기가 나타나는데 이 그루터기는 윌슨그루터기(Wilson stump)로 미국 식물학자인 윌슨이 이곳에서 비를 피하였다고 하여 생긴 이름으로 400여 년에 벌채한 나무의 그루터기로 썩은 그루터기 안으로 10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크다.

윌슨 그루터기 주변의 숲은 수령 1,000년이 넘는 야쿠스기 숲인데 굵기가 한 아름이 훨씬 넘는 커다란 노령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곧게 자라고 이끼가 숲 바닥에 초록 양탄자를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삼나무 줄기에도 숲 바닥처럼 이끼로 덮여 있어 초록 이끼 세상에 있는 것 같다. 계곡 옆으로 난 길을 오르다 보면 옅은 노랑, 붉은 얼룩의 껍질을 가진 노각나무가 많이 나타나는데 한 아름이 넘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있어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이렇게 커다란 활엽수 숲을 지나다 보면 가슴 높이 굵기 3m가 넘는 높이 23.7m의 다이오스기(大王杉), 한 쌍의 부부처럼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메오토 스키(부부삼나무, 夫婦杉)가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남편 삼나무의 나이는 2,000년, 부인 삼나무는 1,500년이라고 한다. 야쿠시마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는 조몬스기는 부부 삼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변으로 울타리가 쳐있어 멀리서만 볼 수 있다. 조몬스기의 줄기에는 굵게 파인 빗살무늬가 있어 긴 세월을 보여주고 있다.

삼나무 노거수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야쿠스기 랜드(Yakusugi Land)로 면적이 270ha이며, 해발 1,000~1,300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해발 1,000m가 되는 야쿠스기 랜드로 들어서면 계곡부여서인지 초록색 이끼가 많이 자라고 있고, 초록빛 길을 따라 안으로 더 가면 줄기가 고색창연하고 덩굴이 감싼 듯한 줄기를 가진 제넨스기(Sennensugi, 千年杉)이 나타난다.



천년이 된 삼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삼나무는 줄기 아래쪽에는 덩굴이 열기설기 엉겨서 자라고 있고 위쪽으로 밋밋한 삼나무 줄기가 보인다. 숲 사면에는 솔송, 삼나무가 줄지어 자라고 고사한 삼나무와 솔송의 줄기는 잎이 떨어져 하얀 줄기만이 빛나고 있으며, 계곡부에는 활엽수와 삼나무가 같이 어울려 자라고 있다. 스키랜드를 지나 더 들어가면 수령 3,000년의 기겐스기가 모습을 보이는데 해발 1,230m에 자라는 기겐스기는 나무 높이 19.5m, 가슴 높이 둘레 8m로 초두부는 고사되었지만 초두부 옆에 자란 초록색 솔송이 자라고 있다.

사진3 = 숲속의 야쿠시마 사슴
사진4 = 윌슨그루터기 전경



사진5 = 노각나무가 자라는 활엽수림 내부 전경



사진6 = 조몬스기 전경
 사진7 = 기겐스기 전경



기겐스기의 줄기는 수천 년 세월을 말해주듯이 깊은 골이나 있고 골에는 질푸른 이끼가 자라고 있다. 또한 줄기 아래쪽에는 여러 Rhododendron 종류가 살고 있으며, 줄기와 가지에는 솔송, 편백, 수레나무, 마가목, 개동청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야쿠시마는 강수량이 4,000mm가 넘는 일본 남동부 끝에 있는 섬으로, 해발 2,000m에 가까운 산이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해발고에 따라 다양한 식물들과 숲과 수령이 수천 년에 달하는 야쿠스기가 자라고 있는 귀중한 자연 유산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